



후보자는 끊임없이 유권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한다. 후보자가 말하고 싶은 것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가 듣고 싶고 원하는 것을 전달해야 한다. 그래야만 유권자의 마음을 얻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후보자는 과학적인 선거 전략을 세워야 한다. 과학적인 선거 전략이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도록 선거 운동의 방향과 방법을 효율적으로 결정하는 일이다. 즉, 유권자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 주어진 여건 아래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원과 수단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용해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이다.

제한된 시간, 한정된 자원, 까다로운 선거법 등의 선거 환경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선택과 집중만이 한정된 자원(시간·자금·조직)의 낭비를 예방할 수 있게 하고, 과학적인 선거 전략을 가능하게 한다.

선거는 경쟁자가 아닌 유권자와의 싸움이다 유권자와 경쟁하라

이 책은 선거 전략 수립부터 실행까지 이론과 실전을 모두 다루고 있다. 이론과 실전이 적절한 조화를 이루고 있어 실제 선거에서 활용하기에 부족함이 없어 보인다. 선거 운동의 방향과 실행 방향에 대해 고민하는 후보자라면 반드시 읽어보기를 권한다. 후보자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궁금증에 해답이 돼 줄 것이라 생각한다.

국회부의장 박주선

선거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선거 전략이다. 체계적인 선거 전략만이 선거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해 승리를 가져온다. 하지만 많은 후보자가 선거 전략에 의해 선거를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과거의 경험에만 의존해 선거를 치른다. 선거 전략이 중요한 것일지라도 제대로 된 지침서가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가장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

전 새누리당 대표, 국회의원 김무성

“반복이 최고를 만든다. 방법이 아닌 원리를 알고 반복하라”라는 말이 있다. 선거 원리를 염두에 두고 반복해서 이 책을 읽는다면, 이기는 선거 방법을 터득할 것이다. 선거 원리를 깨닫는 순간, 여러분께서는 지방의원 선거에서 대통령 선거에 이르기까지 어떤 선거든 승리할 수 있는 ‘선거 전략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국회의원 박광은

생생한 선거 사례는 후보자가 자신만의 선거 전략과 메시지를 구축하는 단초가 될 수 있다. 이 책은 다양하고 풍부한 사례 제시와 분석을 통해 그 단초를 제공한다. 또한 우리나라 선거뿐만 아니라, 외국 선거 사례의 핵심을 짚어 일목요연하게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여건이 복합된 선거 환경 속에서 어떤 선거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필히 탐독하기를 권하는 바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 원장, 전 국회의원 김민석



선거는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선거는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박용상 · 이상철 공저

선거 운동의 주체는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다!

유권자 중심의 관점에서 선거 운동을 하라
유권자의 특성을 파악해 선거 전략을 수립하라
유권자의 투표 심리를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이해하라

바른북스

바른북스



지은이 박용상

전남대학교 석사,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박사과정, 민주당 전남도당 사무처장, 국회의원 보좌관 등 역임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공생·공존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런데 꼭 승패를 가려야 한다면 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손자병법의 제시대로 ‘지피지기(知彼知己)’를 하라. ‘지피지기’로 나와 상대의 장단점을 파악했다면, 다음은 병법36계 중 제15계인 ‘조호이산(調虎離山)’을 실행하라. 나의 가장 장점으로 적의 가장 약한 곳을 치라는 얘기다. 치는 방법은 베트남의 전쟁 영웅 보 구엔 지암(武元甲무원갑) 장군의 3불 전략(적이 원하지 않은 시간, 적에 불리한 장소, 적이 생각하지 못한 방법)을 기본으로 삼아라. 이것이 이기는 싸움의 가장 기본 전략이다.



지은이 이상철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다양한 선거 현장을 거쳐 국회에서 근무했다. 이후 여론조사 분석, 정치 활동, 정당 활동 등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이론과 현장을 접목시켜 왔다. 이 책을 통해 각국의 다양한 선거 사례를 분석하고, 유권자의 투표 심리를 이성이 아닌 감성으로 철저히 파헤침으로써 다양한 선거 환경 속에서 어떤 선거 운동이 가장 효과적인지 대안을 제시한다. 현재 ㈜피플앤리서치 대표이사로 선거조사, 정책조사, 행정조사 등을 수행하는 한편, 정치인과 출마자를 대상으로 정치 및 선거 컨설팅을 전문적으로 해 주고 있다. 선거 전략을 기획하고 캠페인을 진행하는 최고 전략가를 지향한다.

선거는 경쟁자가 아닌 유권자와의 싸움이다
유권자와 경쟁하라



선거는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선거는
2등을
기억하지
않는다

선거 운동의 주체는
후보자가 아닌 유권자다!

2012년 12월 17일